

재난심리지원 전략 개발을 위한 홍수 피해자의 경험분석

A Study on Floor Disaster Experience Analysis for Psychological Support Strategy Development

Jeong Yee Bae*, Hee Hyun Kim**, Hyun Joo Park, Hwa Ryeong Shin, Hee Jeong Hong,
Hae Sook Sohn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Paryong-ro 262, Masanhoewon-gu, Changwon-city,
Gyeongsangnam-do 630-764, Korea.

Department of Nursing, Busan women's college, Busan, Korea

Advanced Practice Nursing, Buasnjin-gu Mental Health Center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Masan University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Inje University

Abstract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experiences among the victims of flood disasters in Busan,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the fundamental data for designing strategies for psychological support for them.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and unstructured audio-taped interviews of 12 flood disaster victims over a one-year period, asking about their experiences during the disaster. The Colaizzi's method was used for a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the interview data, which put their experiences into seven different categories: first-time experience in a flood disaster, discomfort with life without necessities, pain, anxiety about re-disaster, recovery and compensation, support, sympathy and gratitude.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s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mediation program to help the disaster victims overcome the impacts of the accident or disaster, as well as the widespread adoption of pre- and post-disaster education programs throughout the nursing and education professions. Further studies can provide valuable resources for post-disaster programs

* The 1st author Fax +82-51-896-9840. E-mail. jibai0220@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Tel. +82-55-250-3178. E-mail. bangyasee@hanmail.net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Jul. 27, 2015 / Revised: Aug. 28, 2015 / Accepted: Sep. 7, 2015

including the training manual.

Key words: disaster experiences, psychological support, qualitative research

국문초록

본 연구는 홍수피해의 재난을 경험한 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심리지원 전략개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 되었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심층면담과 관찰법을 사용하였고 연구 참여자는 총 12명이었다. 면담질문은 “홍수 피해의 과정에서 있었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포괄적인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였고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시간은 참여자별로 2~3회 진행되었고 1회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2~3시간 정도이다. 자료 분석방법은 Colaizzi(1978)가 제안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그 경험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재난 피해자들의 경험은 생전 처음 재난을 경험함, 몸만 빠져나와 불편한 생활, 고통스러움, 재 피해에 대한 불안, 복구 및 보상, 지지, 주변을 돌아볼 여유와 감사함 7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재난피해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실무에서 재난이나 재해, 사고 후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행이 필요하고, 재난이나 재해 후 재적응을 돕기 위하여 이전의 재난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적인 변화와 적응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간호계 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반으로 재해 및 재난에 대한 사전, 사후 교육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좀 더 다양하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한 교육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자연재해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로서 재해 및 재난 이후 심리적 지원을 위한 전략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재난경험, 심리지원, 질적연구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거의 매년 지진, 홍수, 태풍, 해일, 폭설, 쓰나미(Tsunami)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과 같은 인적재난을 경험하고 있다(Kang, 2007). 특히 최근에는 재해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어 재난 피해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고, 교통의 발달, 도시 구조물의 대형화·밀집화·고층화로 대형 인적 재난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엘니뇨(el nino), 라니냐(la nina) 등에 의한 기상이변으로 자연 재난의 규모도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Kim, 2008).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정보통신, 교통, 수송시스템의 마비, 테러, 조류독감, 구제역, 광우병, MERS등은 기존의 자연재난이나 인적재난과 성격이 다른 신종재난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Lee, 2005)

최근 국내·외적으로 잦은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기후변화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기후변화협약과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등이 국제적인 이슈로 등장하였다(Jin, 2011). 지난 10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은 0.74℃ 상승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7℃ 상승하여 2100년에는 4.2℃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최광호, 2011). 이런 기온상승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국지적 계절라성 집중호

우가 빈발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규모도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NEMA, 2009). 뿐만 아니라 인적재난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도시 산업시설의 대형화, 집중화를 비롯해서 다중이용시설의 증가, 신종산업의 등장 등으로 피해규모도 대규모적인 복합재난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NEMA, 2009).

대표적인 세계의 대형재난으로는 재산피해 34억 달러, 사상자 일반 여명의 피해를 입은 1986년 소련 우크라이나 공화국에 있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사고와 2001년 미국건국이래 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있었던 9.11 테러,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발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자연재난으로는 2005년 미국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재난이 있었고, 일본에서는 기존의 테러와는 달리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대량살상을 노린 1995년 동경 사린가스 살포사건이 있었으며,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재난에 대한 위협성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자연재난으로 1995년 한산·아와이 대지진을 들 수 있는데 이 재난에서는 사망자 5,249명, 부상자 26,804명, 이재민 약 20만명과 14조 1,0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다(<http://www.moi.go.kr>).

우리나라에서도 대형재난이 발생하였는데 사망 192명, 재산피해 47억 상당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으로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묻지마 식 무차별적 방화사건이 있었고, 급속한 현대화와 도시화 과정 속에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총체적인 모순을 보여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있었으며 2008년도에 승례문 방화사건과 그 외에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태안의 기름유출 사고, 최근 세월호사고등이 있었다(<http://www.moi.go.kr>).

이러한 재난은 국가, 지역사회, 개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인간의 생존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게 되고 경제적 위기, 극단적인 상실감과 공포, 두려움, 알콜이나 약물 같은 물질남용, 가정 내 폭력, 가족해체 등의 사회 문제로 확대되어 많은 재난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심리, 사회적으로 위기를 초래한다(NEMA, 2008).

이러한 위기에 대해 적절한 심리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급성 스트레스 장애(Acute Stress Disorder, ASD)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포함한 다양한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NEMA 2009), 개인적인 불안과 우울의 문제는 가족, 지역사회로 확산되어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수준을 떨어뜨리며, 지역사회 전체가 잠재적 정신건강문제를 가지게 되므로 각종 재해나 재난의 발생 시 빠른 시일 내에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관심 영역으로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의 분야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재난을 경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지원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연재난 중 먼저 홍수피해자들의 피해경험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이들의 효율적인 심리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그들의 경험을 밝히는 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대상자의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상의 본질을 밝히고, 대상자가 경험하는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그 목적을 둔 귀납적이고 기술적인 접근으로(Bae, 2009), 홍수피해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

여 그들을 위한 새로운 중재법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전통의 하나인 현상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홍수피해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재난심리지원 전략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1. 재난

재난의 정의와 유형분류는 학자와 그리고 국가의 행정체제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최근에는 위기의 개념까지 합세하여 재난의 개념 정의에 혼란을 주고 있는 상태로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재난의 개념이 시대와 사회환경 등에 따라 달리 인식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어 여건에 따라 작은 사고도 재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상현, 2008).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4월 8일에 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서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증상,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의 유사한 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제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자연재난과 인위적 재난의 개념을 통합하고,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난 등 사회전반에 걸쳐 기능이 마비되는 사회적 재난까지도 포함하여 재난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것이다(Seo, 2007).

재난의 개념에 관한 많은 관점이 있는 만큼 각각의 재난 상황에 맞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Kang, 2007). 이와 같이 여러 학자들과 기관 및 법에서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재난이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서 그 발생요인이 있으며, 대규모의 외력(外力)으로서 급격한 자연환경과 도시환경을 변화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함과 동시에 사회의 방재능력을 저하시키는 사고”라고 정의할 수 있다(Baek, 2009).

재난은 위험(risk), 위기(비상상황, emergency), 재해(hazard) 등의 용어와 혼용(混用)되기도 한다(Kang, 2006). 재난은 “원인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된 사고로 생활환경이 불리한 방향으로 급작스럽게 변화하거나 막대한 인명과 재산치해로 기존의 질서와 기능이 상실되고,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현상”이며 재해는 “인간의 생활 범위 내에서 일단 발생하면 물리적 손상과 경제적 손실을 끼치거나 인간의 생명과 행복에 위해(危害)를 미치는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현상을 지칭하고, 공학적으로 주어진 시간과 장소 내에서 일정 강도 이상의 잠재적 손해를 일으킬 정도의 특정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률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Kwon, 2003). 이처럼 재난은 피해를 주는 현상 또는 사건이며 재난은 그로 인한 피해 또는 가능성의 수학적

확률로 이들 용어간의 개념적 구별은 방재행정에 큰 실익이 없으며 재난에 대해서 발생원인적 측면보다는 주로 피해액과 사상자의 규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실제 재난발생시 구호 구조 복구 등의 의사 결정에 유용하다. 왜냐하면 재해 또는 재난은 인간에게 어떠한 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피해가 없다면 단지 자연의 변화나 기술적 실수 정도로만 파악될 것이므로 재해를 사회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재해와 재난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용어를 재난으로 통칭하겠다(Kang, 2006).

2. 재난의 유형과 관리

재난의 정의 못지않게 재난의 분류기준도 다양하며, 특히 최근에는 재난 자체가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모호한 경우가 많으나 일반적으로 발생원인, 발생장소, 피해대상, 발생과정, 진행속도 등에 따른 분류기준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분류기준 중 최근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재난의 분류기준은 재난의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다음과 같이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해외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다(재난관리기본법, 2004). 재난피해자는 “재난의 영향을 받은 사회에서 정상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벗어나 외부의 도움 없이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산, 간접시설, 생활수단의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각종 재난 위기로부터 생명, 재산, 건강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NEMA, 2009).

보다 구체적으로 그 정도에 따라 생각하자면 1차 피해자는 외상사건에 최대 노출된 사람을 말할 수 있고 2차 피해자는 1차 피해자와 가까운 친인척을 들 수 있다. 3차 피해자는 재난 상황에서 구조 및 복구에 관련하는 사람들로, 의료, 간호, 정신보건, 적십자, 성직자, 응급요원, 소방관, 경찰관 등이 있다. 그리고 4차 피해자는 재난이 일어난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 즉 리포터나 정부 관계자들을 말할 수 있고 5차 피해자는 재난 관련 매스미디어의 보고를 접한 후 심리적 스트레스와 혼란을 경험하는 불특정 다수인 개개인이라 하겠다(NEMA, 2008).

일반적으로 재난 피해자들은 기억의 재 경험, 악몽, 환각의 재현(플래시백), 정서적 무감각, 상황에 대한 회피, 과잉 각성과 불안, 심하게는 해리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정상적이며 상당기간 지속되다 점차적으로 감소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감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재난피해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꺼내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오히려 말이 없어지고 차분하여 무덤덤하거나 차갑게 보일 수도 있고, 고립되어 혼자 있고 싶어 하기도 한다. 재난 후 전형적인 반응으로는 집중력이 저하되고 과민반응이 나타나고, 인간의 대한 신뢰감, 흥미와 의욕들은 상실되기도 한다. 괴로운 감정을 잊기 위해 술, 마약, 과식, 무분별한 성생활에 빠지기도 하고 일에 매달리기도 한다. 재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및 자살 등 정신건강문제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외상 후 장애 직후에는 대개 구체적인 스트레스 징후가 발생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예측할 수 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Acute Stress Disorder, ASD)는 개념적으로 PTSD와 유사하며 비슷한 징후들이 나타난다. 재난 발생 후 나타나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ASD)에 대한 연구를 보면 ASD가 더 나쁜 결과를 유발하며, PTSD이후에 나타난다고 한다. 따라서 ASD의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NEMA, 2009).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건 직후에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반응을 경험하게 되는데, 대개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수치심이나 죄책감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으로써 상당 기간 지속되다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심각한 고통과 외상 반응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나 급성 스트레스장애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경우 악몽, 플래시백(환각 재현), 침습적인 재 경험, 정서적인 무감각, 회피 반응, 과잉 각성, 불안 및 해리 상태나 심각하게 단절된 감정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반응으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행동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NEMA, 2009).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 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NEMA, 2009).

재난의 정의 못지않게 재난의 분류기준도 다양하며, 특히 최근에는 재난 자체가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모호한 경우가 많으나 일반적으로 발생원인, 발생장소, 피해대상, 발생과정, 진행속도 등에 따른 분류기준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분류기준 중 최근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재난의 분류기준은 재난의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다음과 같이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해외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다(재난관리기본법, 2004). 재난피해자는 “재난의 영향을 받은 사회에서 정상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벗어나 외부의 도움 없이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산, 간접시설, 생활수단의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각종 재난 위기로 부터 생명, 재산, 건강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NEMA, 2009).

보다 구체적으로 그 정도에 따라 생각하자면 1차 피해자는 외상사건에 최대 노출된 사람을 말할 수 있고 2차 피해자는 1차 피해자와 가까운 친인척을 들 수 있다. 3차 피해자는 재난 상황에서 구조 및 복구에 관련하는 사람들로, 의료, 간호, 정신보건, 적십자, 성직자, 응급요원, 소방관, 경찰관 등이 있다. 그리고 4차 피해자는 재난이 일어난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 즉 리포터나 정부 관계자들을 말할 수 있고 5차 피해자는 재난 관련 매스미디어의 보고를 접한 후 심리적 스트레스와 혼란을 경험하는 불특정 다수인 개개인이라 하겠다(NEMA, 2008).

일반적으로 재난 피해자들은 기억의 재 경험, 악몽, 환각의 재현(플래시백), 정서적 무감각, 상황에 대한 회피, 과잉 각성과 불안, 심하게는 해리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정상적이며 상당기간 지속되다 점차적으로 감소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감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재난피해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꺼내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원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오히려 말이 없어지고 차분하여 무덤덤하거나 차갑게 보일 수도 있고, 고립되어 혼자 있고 싶어 하기도 한다. 재난 후 전형적인 반응으로는 집중력이 저하되고 과민반응이 나타나고, 인간의 대한 신뢰감, 흥미와 의욕들은 상실되기도 한다. 괴로운 감정을 잊기 위해 술, 마약, 과식, 무분별한 성생활에 빠지기도 하고 일에 매달리기도 한다. 재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및 자살 등 정신건강문제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외상 후 장애 직후에는 대개 구체적인 스트레스 징후가 발생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예측할 수 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Acute Stress Disorder, ASD)는 개념적으로 PTSD와 유사하며 비슷한 징후들이 나타난다. 재난 발생 후 나타나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ASD)에 대한 연구를 보면 ASD가 더 나쁜 결과를 유발하며, PTSD이후에 나타난다고 한다. 따라서 ASD의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NEMA, 2009).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건 직후에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반응을 경험하게 되는데, 대개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수치심이나 죄책감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으로써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심각한 고통과 외상 반응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나 급성 스트레스장애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경우 악몽, 플래시백(환각 재현), 침습적인 재 경험, 정서적인 무감각, 회피 반응, 과잉 각성, 불안 및 해리 상태나 심각하게 단절된 감정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반응으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행동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NEMA, 2009).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 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NEMA, 2009).

3. 재난 심리

1) 정신 심리적 피해

일반적으로 재난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정신 심리적 손상으로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기억의 재 경험, 과잉 각성, 악몽, 정서적인 둔감, 회피, 해리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으로서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점차 감소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감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일으키기도 한다(심리지원지침서, 2008). 더욱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그 고통과 두려움은 매우 강력한 스트레스를 일으킨다.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감과 흥미와 의욕 상실, 무력감, 우울증, 위축, 절망감, 좌절감, 문제해결 능력과 대응기술의 저하 등 정서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 인지적으로는 재난 상황에서의 외상적 사건을 악몽이나 플래시백

(Flashback)현상으로 반복 체험하게 되기도 하고 집중력 저하나 혼돈이 생겨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하거나 기억장애, 자존감 저하 및 자기비하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함께 극단적인 상실감과 분노가 학대, 폭력, 알코올 및 약물중독에 빠지는 등 정신병리 현상을 증가시키기도 한다(Disaster victims Psychological Support Guidelines, 2008).

2) 신체적 피해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이 불안, 초조감과 함께 무의식적으로 신체적인 증상으로 전환되어 마비, 실명, 통증 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과 같은 불안과 초조, 지금까지의 긴장과 과로 등이 심신에 부조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 외에 식욕저하, 성욕저하, 깜짝 놀라는 반응, 두통, 위장문제를 호소하기도 한다.

3) 사회적 피해

대인관계의 변화로 괴로운 감정을 잊기 위하여 술, 마약 등의 물질남용에 빠지거나 과식, 무분별한 성생활에 빠지거나 일에 매달리기도 한다. 또한 문제해결능력과 대인관계기술의 저하로 무관심하거나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불신, 학업이나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등으로 사회생활이 위축되기도 한다. 그 외에 대인공포, 약물 의존, 자살 등으로 발전하여 이혼이나 실직 등 일상생활의 파탄을 초래한다. 재난 피해 후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의료비가 상승하고 결근과 실직, 사회생활 기피, 가족 해체 등은 생산성과 삶의 질을 저하 시켜 사회적 혼란을 야기 한다. 노인, 빈곤층, 실업자, 농·어·민 등 사회적으로 배제된 계층은 자원배분, 정보에의 접근성의 불평등으로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갈등을 낳는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사회적 불신을 낳고 재난충격 후유증으로 사회·심리적 병리현상으로 확산되어 사회 간접비용이 발생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난심리지원 전략개발을 위하여 홍수경험자의 체험에 중점을 두고 그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 대상과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재난을 경험한 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의 연령은 30대부터 80대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며, 30대와 50대가 각각 3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남자가 2명 여자가 10명이었다. 대상자들 모두 도시 영세민 지역의 임대아파트나 재개발 대상 밀집주거지에 사는 저소득층이었으며, 4명의 독거노인과 장애인 1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상자 전원은 이전에는 홍수 피해 비경험자였고, 대부분은 재난 피해를 처음 경험하였다. 본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고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연구자와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선정하였으며 참여자의 진술은 익명을 사용하였고 연구의 목적과 연구 과정에 대한 정보도 미리 제공하고 동의를 받았다. 참여자들의 자료는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으며, 연구 도중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방법은 참여자와의 심층면담과 관찰법을 사용하였으며 면담은 참여자가 편리한 시간에 대상자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은 “홍수 피해의 과정에서 있었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포괄적인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였고 구술 내용 중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 나타나면 이를 중심으로 질문하는 형식으로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은 참여자별로 2~3회 진행되었고 1회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2~3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4. 자료 분석

신뢰성 증진을 위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질적 연구의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 교수 2인에게 연구결과의 평가를 의뢰하여 연구과정 전반과 연구결과에 관해 평가를 받았으며, 주제범주화에 대한 수정작업을 거쳐 연구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자가 기술한 면담기록내용과 분석결과를 보여주어 참여자의 경험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고, 간호학 교수 2인에게 연구 결과의 평가를 의뢰하여 주제의 범주화에 대한 수정작업을 거쳐 완성하였다. 본 연구의 엄밀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Lincoln & Guba(1985)가 제시한 기준에 준하여 진행하였다. 신빙성(credibility)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차단하면서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고, 적합성(fittingness)을 위하여 엘리트 편견(elite bias)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참여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경제수준 등을 고르게 포함시켰다. 자료 분석과정에서는 분석내용이 설득력이 있는지 참여자에게 타당성을 확인받았고 질적 연구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평가와 도움도 받았다. 감사가능성(auditability)을 위하여 연구과정과 결과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분석의 근거가 되는 원 자료를 인용문으로 제시하였다.

IV.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한 원 자료에서 추출된 의미 있는 진술은 총 284개였으며, 이중에서 서로 유사한 의미를 가진 자료를 통합하여 243개의 구성 의미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60개의 주제가 형성되었고 다시 20개의 주제 모음으로 조직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생전 처음 재난을 경험함”, “몸만 빠져나와 불편한 생활”, “고통스러움”, “재 피해에 대한 불안”, “복구 및 보상”, “지지”, “주변을 돌아볼 여유와 감사함” 등 7개의 범주를 추출하였다. 각 단계를 거치는 동안 연구자는 직관과 통찰력을 이용하여 원 자료를 포괄하면서도 보다 추상적인 언어로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1) 생전 처음 재난을 경험함

참여자들은 태어나 처음으로 재난을 경험하였고, 예상치 못한 홍수피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 급박한 상황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서웠으며, 당혹스러웠다. 몸이 불편하여 차오르는 물 속에서 피신을 할 수 없어 집안에 갇힘으로써 무서움이 증폭되었다. 점점 가슴까지 차오르는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데 꼼짝달싹을 못하게 되니 두렵고 무서운 생각들이 엄습하다가 재난이 일어난 이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스치며 그 순간을 마지막이라 생각하기도 하였다.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눈 앞의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잠시 구분이 안가고, 살림이 기울어 전에 살던 곳을 떠나 더 잘살아보려고 이사를 하였으나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해를 입게 되고, 평생을 살아온 터전인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당황스럽기도 하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을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었는데 엄청난 양의 빗물이 갑자기 가슴까지 차오르는 기라” “내가 하반신 마비라 움직일수가 없어요, 점점 물이 차오르는데 피할 방도가 있나”

“우리 막내놈이랑 둘이 사는데 그날은 평일이라 아들녀석이 출근하고 혼자 있었어. 내가 여기 산지 좀 되는데 한번도 이런 적이 없어서 별로 걱정 안했는데 어느 순간 문지방에 찰랑찰랑 거리는 물을 보고 깜짝 놀랐어. 어느 순간 문지방까지 물이 차올라 밖에 나가보아도 피할 곳도 없어. 아이고 이리다 죽는구나 했지. 얼마나 놀랐는지 말로다 못해...”

“형편이 안 좋아져서 얼마 전에 송정으로 이사를 왔는데. 오자마자 이런 일을 당하니 괜히 이사 온 것 같기도 하고” “이사한지 3달 만에 이런 수해를 입으니 처음에는 허탈했죠.”

2) 몸만 빠져나와 불편한 생활

아무런 생각 없이 오직 살아야 한다는 목적 하나로 겨우겨우 몸만 빠져나왔는데, 또 살아가려고 하

니가 생활용품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신의 손과 발이었던 전동휠체어의 파손으로 일상 활동에 제약도 받게 되었다. 생활터전이 엉망이 되면서 수도며, 전기, 가스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해야 하고, 눈에 토사가 들어가 아프기도 하고, 몸이라도 씻어야 하는데, 수도, 전기등이 끊어져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니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내에 사용하려고 하니 일상생활이 이만 저만 불편한 게 아니었다. 집이 파손되면서 외부환경과 경계를 지어주던 대문과 담벼락의 붕괴로 도둑이 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기게 되고, 급하게 구한 후미진 곳의 주택에서 당분간 살아야 하니 무섭기도 하였다.

“당시 입고 있던 옷과 휴대폰만을 챙겨 겨우 집을 빠져나왔어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돈이고, 지갑이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옷이며, 가전제품, 이불, 식기구, 전부 등등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전동 휠체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손과 발이 묶어버렸으니 어지해야 될지..”

“수도시설도 복구 되지 않고 기계도 교체를 해야 하는데 물 사용이 여의치가 않다. 현재는 양수기를 이용해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생활이 너무 불편하다”

“대문과 담벼락이 없어졌으니 집을 비우고 다닐 수도 없다. 임시 숙소에 있으니 집에 도난이라도 당할 까봐 걱정이 되고, 밤에 집에 와보느라고 왔다갔다 하니 불편하고 무섭기도 하다” “담이 없어져 이렇게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고 엉망이 된 빨래를 널어야 하는데 널지 못해 불편하다”

3) 고통스러움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지만 피해자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복구를 위해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전체적인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었다. 겨우 겨우 친척들에게 신세를 저서 도배도 하고 복구를 하였으나 몇 일 뒤 다시 폭우가 내리면서 경제적인 고통은 이중고가 되었다. 심리적으로는 재난 경험 후 피해자들은 재난과 관련된 꿈을 꾸거나 악몽에 시달리면서 불면증을 호소하며, 일상적인 자극에도 과도하게 놀라는 반응을 보이거나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가된 각성반응을 나타냈다. 반대로 주변에 대한 자각이 감소되어 집중을 하지 못하고 멍한 상태가 되는 해리성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재난 경험 직후에 받은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냈는데 대개 불안이나 우울,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하소연 할 곳이 없어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으며, 지나친 관심에 불쾌감과 수치심, 죄책감도 나타내고 있었다. 일부 피해자들은 시간이 지나도 심각한 고통을 호소했는데 플래시백(환각 재현), 쉽게 흥분하거나 울고 웃는 감정의 기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피해의 충격으로 인하여 불안함, 우울, 억울함, 속상한 감정을 나타내었고, 별뜻 없이 한 이야기에 과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거나 주변의 시선이 신경쓰이는등 예민한 성격이 되었다.

“1차 피해 직후 도배를 새로 했는데 새로 한 당일엔 2차 피해를 다시 당해 또다시 도배를 하고 보니 벽의 합판이 썩어 곰팡이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다시 다 뜯어냈다, 또 도배를 해야되는데 돈이 오 테있노? 한 두푼 드는게 아인데,,”

“그때 생각을 하면 잠도 오지 않고 차가 지나다니는 소리만 들어도 캄캄캄캄 놀라곤 해. 피해 이후 꿈속에서 자꾸 누군가가 불러 나가보면 아무도 없는 꿈을 꾸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재해를 입은 후 부터 조그마한 소리에도 캄캄캄 놀라고 심장이 쿵쿵 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통이 생겼어요”

“그날 이후 가슴도 진정이 안 되고 눈만 감으면 그 때 상황이 자꾸 떠올라 누워 있을 수도 없고 잠 을 제대로 잘 수도 없어 신경안정제를 먹고 있어” “스트레스 관리보다는 복구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주민들과도 잘 지낼려고 하고 불안한 마음이나 화나는 것은 참으려고 하는데 요즘은 누가 건들이기만 하면 바로 터질 것 같은 기분이에요. 자꾸 화만나고, 억울한 마음 뿐이죠”

4) 재 피해에 대한 불안

피해자들은 태어나 처음 재난을 경험하고 겨우겨우 어렵게 극복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재해피해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었다. 재난을 겪었던 현장으로 다시 복귀해 살아야 하는데 또 같은 상황이 반복 될까봐 불안한 감정을 보이고 있었다. 회피하고 싶지만 삶의 터 전인 그 곳을 벗어날 수 없기에 다시 그 곳으로 돌아가 생활해야 하는데 재난이 일어나던 괴로운 기억들이 재현되고 재난이 일어나기 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재난상황이 정리가 되고 피해복구가 차츰 다 되어 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비슷한 상황이 생 기면 또 다시 지금 경험했던 피해가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많이 나타났으며, 전체 피해자 모 두가 재발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보이고 있었다.

“설사 복구가 완전히 된다고 하더라도 수해를 입기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다시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것이 불안하고 이제 물소리만 들어도 또 담벼락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죠”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오면 겁부터 나고 걱정이 많아지죠, 문제의 그 계곡이 폭우로 다시 범람하 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해놓은 상태로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한번 범람을 했는데 제 대로 복구가 된다 한들 또 범람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지금은 그 폭포(아파트 외벽을 타고 내리 는 빗물)가 아파트를 덮칠까봐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5) 복구 및 보상

피해이후 복구 지연으로 갑갑해하고 흥분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혼자 보상 문제를 알아보러 다니게 된다. 임시로 구해준 중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동사무소, 시청, 구청등을 찾아다니며 복구가 언제

짊 이루어지는지, 보상은 얼마만큼이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러 다니느라 혼자서 동분서주하다. 노력에 비해 복구가 지연되자 답답해하고 관계당국에 화를 내는 등의 격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복구가 진행되면서 전체 복구순위에서 밀린 개인들이 스스로 발품을 팔며 직접 알아봐야 하는 불편감과 더 심각한 재난을 당했을 때 의지 할 곳이 없다는 생각에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다. 피해 현장에 난무하는 유언비어들로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간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였다. 어느 누구도 편하게 보상에 대해 얘기를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고 서로 서로가 불편한 감정으로 눈치를 보고 있으며, 보상의 규모나 내용에 대해 서로 쉬쉬하고 있었다. 자칫 말실수를 했다가는 오해받기 십상이고, 혹시 이웃보다 보상금이 많아도 걱정이고, 또 작으면 기분이 나쁘니 힘든 상황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고통을 나눌 수가 없다. 피해자들은 정확한 복구 및 보상과 관련된 진행상황을 알기를 원했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기관이 없어 더욱 혼란스럽고 앞이 막막하기만 하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는 것 같아 주민들 서로 간 갈등이 유발되고 불분명한 책임소재로 혼란은 가중되고 있었다. 미진한 복구 현장, 주민들 간의 갈등고조, 정확한 정보의 부재로 화가 나고 정부당국에 대해 불신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보상은 반드시 될 것이라고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보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등 고위층 공무원들이 다녀가기만 하고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나도 예전에 건설업을 해봐서 아는데 이런 일이 생겨도 원래 행정처리가 느린 건 알지만 그래도 너무 답답하고 분노가 치 밀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재난이 일어나면 그 피해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알아보지 않으면 해결이 안되고, 아무도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행정적으로 서류를 떼는 것도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피해의 규모나 상황에 대해서도 증명해야 하는 자료가 또 필요하고, 일을 처리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친척들도 자꾸 물어보면서 보상 어떻게 됐냐고, 얼마나 받을 수 있냐고 그러는데.. 나도 잘 모르고, 다른 집이랑 보상금액이나 보상 내용이 다르면 화나고 또 싸우게 될까봐 말하기도 곤란해요..(약간의 짜증섞인 말투로.)” “아파트 주변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에서부터 피해를 안입은 입주민들하고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들하고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피해를 안입은 입주민들은 피해를 입은 우리를 탓하는 거 같고,, 언제든지 폭발할 가능성을 가지고 살고 있죠, 서먹서 먹하이,,”

“세세한 것까지는 보상이 안되겠쥬, 그래도 언젠가는 해결이 되고 보상도 해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6) 지지

홍수피해로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지체계는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이었다. 이들의 물질, 심적 지지를 받음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도움을 받은 피해자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은 냄비며, 그릇들, 가벼운 옷가지, 당장 필요한 세면도구며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사소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이들의 지지와 격려가 큰 도움이 되고 지지가 되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하였다.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충격적인 상황을 경험하였을 때 인간은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존재라고 느낀다. 그럴때 인간은 신적인 존재를 찾고 고통속에서 헤쳐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된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 평소 가까이 있던 가족과 친구, 친지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다. 아이들도 비교적 잘 이해해 주는 것 같고, 특히 남편의 지지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가족들이 없었다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고맙고 남편에게 감사해요”

“이렇게 방문해줘서 고마워. 얘기하니까 훨씬 속이 편하구만(손을 꼭 잡음)...”

“종교가 기독교여서 불안할 때 의지할 곳이 있고, 저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지금도 성경공부중이예요,” “절에 가서 기도를 좀 해야겠어요, 한동안 복구작업하느라 부처님을 못 찾아갔어,, 갖다오면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던 것들이 신기하게 사라지거든” “그래도 우짜겠노? 다, 내 업이지,,”

7) 주변을 돌아 볼 여유와 감사함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인하여 정신없이 시간은 흘러간다. 하지만 죽지 않고 그래도 살아남았음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 내 가족이 친척이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과, 친척, 이웃이 도움을 주고 내가 힘들 때 도와주려는 주변 사람들이 있어 너무도 감사하다. 나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홀로 지내시던 옆집 할아버지가 걱정이 되기도 한다. 휠체어가 망가져서 외출도 하지 못하는 이웃이 밥이나 먹고 지내는지 걱정이 되고, 집에서 기르던 애완동물의 생존에 다행감을 표하기도 하였다.

“우리 할멈이 하반신을 못 써. 할멈이 집에 있었음 내가 할멈을 업고 나와야 하는데 이 나이에 이 몸으로 어떻게 할멈을 업고 나오겠어... 나 혼자 빠져나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해... 그 때 우리 할멈이 이집에 있었음 영락없이 죽었지... 여기 없었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정말 생각도 하기 싫어...”

“그날 다행히 아들 녀석이 개를 친구 집에 데려다 놔서 이놈은 살았지 뭐야.. 그나마 다행이야..” “1층에 전동휠체어를 쓰는 장애인이 사는데 이것 봐라. 고장 난 휠체어로는 외출도 못해,, 나중에 내가 한번 데려다 봐야겠어” “옆집의 혼자 계시던 어르신이 걱정이야. 혼자 계시서 더 놀라셨을 건데...”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나타난 홍수 피해자들의 경험은 생전 처음 재난을 경험함, 몸만 빠져나와 불편한 생활, 고통스러움, 재 피해에 대한 불안, 복구 및 보상, 지지, 주변을 돌아볼 여유와 감사함 등 7가지로 범주화되었다.

피해 경험에서 나타난 첫 번째 범주는 생전처음 재난을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당황스럽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막막한 마음으로 가득하였다. 태안지역 재난의 심리적 건강을 조망한 Kim, *et. al.*(200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고 후 8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태안주민들은 여전히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1990년대 초반 이후 생계유지 등 전통적인 욕구충족 이외에 재난후유증 등 정신적 병리현상에 대한 심리지원 필요성이 세계적으로 대두되었으며, UN과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각국의 심리 지원활동 권고·지원하고 있으며, FEMA는 체계적인 심리치료를 위하여 재난현장에 ‘재난심리치료사’파견 및 ‘재난 카운셀링(교육)프로그램’운영하고 있다. Traumatic Stress Clinic(영국), 효고 외상스트레스 연구소(일본), 연방기술위험구조단(독일)등 세계 각국에서 재난피해자의 심리회복 지원기구를 운영 중에 있다(Shin, 2006).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피해자의 정신적·심리적 충격완화 및 심리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2008년 소방방재청 및 부산시가 주체하는 특별재난지역(법 제 60조) 및 피해규모가 큰 지역에 한하여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NEMA, 2009).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를 구성하여 보다 수준 높은 재난심리지원을 통해 재난심리피해자들의 심리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두 번째 범주는 피해를 입은 곳에서 유일하게 몸만 빠져나와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불편감과 임시로 생활하게 되는 거처에 대한 두려움, 환경의 변화로 인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Song(2012)은 부산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재난분야를 연구하였고, Seong(2009)는 재난의 심각성과 재난에 취약한 재해약자, 그리고 그들을 위한 안전복지에 대한 인간적, 물리적, 환경적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재난에 취약한 계층이 존재하고 이들은 경제적, 신체적, 환경적, 정보적 취약성 유형에 주로 적용되는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영아 및 아동, 외국인 노동자들을 언급하였다. 어린아이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난한 어린이가 부유한 어린이보다 안전사고의 위험률이 5배나 높다는 보고(Seong, 2009)가 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재난의 규모가 점점 대형화 되고, 복합적인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현대의 시점에서 재난에 취약한 재해약자를 규정하고 불확실한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재해 피해 경험에서 나타난 세 번째 범주는 재해 후 삶의 전반에 걸친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스러움이었는데, 경제적으로는 무너진 담벼락 등 가옥의 수리, 전기, 가스 등의 재설비, 장관 도배 등 집안 환경의 재정비등으로 경제적 부담감이 컸고, 불투명한 보상에 대한 막막함에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심리적으로는 수면장애, 두려움, 불안함, 예민해짐, 답답함, 걱정, 위축, 열등감, 우울 등 건강문제의 악화로 고통스러워하였다. 국내에서는 지난 5년간('98년~'02년)발생된 재난은 총1,489,744건, 재산피해액은약 3조 6천억 원, 인명피해는 1,977,970명이며, 이를 연간 평균으로 환산 시 매년 약 297,949건, 재산피해 약 7천억 원, 395,594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미국의 9·11 테러 참사로 뉴욕세계 무역센터가 완전 붕괴 되었고, 3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450억 달러의 자산 및 인적 손실을 가져온 사례도 있다. 태풍 매미로 인하여 재산 피해를 당한 농민이 자살하였고, 문화방송 및 그리고 You, *et. al.*(1997)의 연구에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분석 결과, 피해자 군에서 불안, 우울증, 적개심, 신체화 반응, 공포, 불안 점수가 대조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또한 피해자 가족에서도 불안과 우울증 점수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되어(재난피해자 심리지원센터, 2008),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자연재난을 인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피해보상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시설, 산업, 교통, 화재 등의 보험과 같이 자연재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이고 행정적인 제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재해 피해 경험에서 나타난 네 번째 범주로는 첫 번째 피해의 복구를 위해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던 중 다시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에 대한 재 경험을 하게 되어 더욱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일반적으로 재난 피해자들은 기억의 재 경험, 악몽, 환각의 재현(플래시백), 정서적 무감각, 상황에 대한 회피, 과잉 각성과 불안, 심하게는 해리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정상적이며 상당 기간 지속되다 점차적으로 감소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감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재난피해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꺼내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오히려 말이 없어지고 차분하여 무덤덤하거나 차갑게 보일 수도 있고, 고립되어 혼자 있고 싶어 하기도 한다. 재난 후 전형적인 반응으로는 집중력이 저하되고 과민반응이 나타나고, 인간의 대한 신뢰감, 흥미와 의욕들은 상실되기도 한다. 괴로운 감정을 잊기 위해 술, 마약, 과식, 무분별한 성생활에 빠지기도 하고 일에 매달리기도 한다. 재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및 자살 등 정신건강문제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태풍 매미로 인하여 재산 피해를 당한 농민이 자살하고,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발생 시 생계 터전을 잃은 피해 어민들이 자살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Choi(1995)의 연구에 의하면 수해지역의 수방정책관리전략으로 저류조, 하수관, 배수터널, 펌프, 제방 설치 등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대책들은 강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야만 유효한 정책들이다. 위협의 불확실성과 인간의 예측능력의 한계에 비추어 볼 때 예방전략 위주의 수방대책은 적절하지 못하다. 위협의 사전적 제거와 예방에 중점을 두는 예방 전략과는 대조적으로 가상적 위협이 아닌 실제화 된 위협을 대상으로 삼으며, 예견하지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는 위협에 대한 시행착오적 접근을 강조하고,

실제로 나타난 위협에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인간의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전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재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인력을 갖추고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난으로부터 학습하고 지식을 축적하여 재난에 더욱 유효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복원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재해 피해 경험으로 나타나는 다섯 번째 범주는 복구 및 보상이다. Vis, et. al.(2003)의 네덜란드의 수해대책 연구에 의하면 네덜란드는 저지대 국가로서 매년 겪는 홍수로부터 자산과 인명피해를 보았다. 수해를 줄이기 위해 'Room for the river' 프로젝트를 진행키로 하고 통합적인 공간 계획을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라인강의 제방을 계속 높이고 보강해 왔던 기존정책을 탈피하여 강의 홍수 수용 공간을 대폭 늘려 물의 위협에 대처하자는 개념의 정책이다. 물과의 전쟁에서 물과의 공생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꾀한 것이다. 물의 무 위험성을 안전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순이익의 증대를 안전 선택의 기준으로 삼은 정책결정 사례라고 볼 수 있다. Myeong(2008)은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을 위한 빠른 경제적 보상 및 시설물의 복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위협으로부터 잠재적인 손실 경감을 위한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러한 예방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기민하고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며, 재난이 종료된 이후에는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통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이 신속하게 기능을 회복하고 나아가 향후 재난의 재발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나 이를 완벽하게 막아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므로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대응시스템의 적절한 체제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빠른 복구전략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는 재난안전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확산, 활성화 시키고 일부지역에서 시행해오던 풍수해 보험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복구와 보상을 위한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 범주는 이웃과, 가족들, 친척, 친구들이 물심양면으로 돕고, 건강은 괜찮은지 피해상황은 어떤지 걱정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마음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지가 되어주고 있었다. Im(2010)의 노인 자살시도경험에 관한 연구를 보면 가족, 배우자, 자녀의 지지가 노인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Oh(2003)의 연구에서도 가족과 친구의 지지체계는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NEMA(2009)의 재난심리지원 전문요원 순회교육 자료에 의하면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이란 '재난 및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정서적 고통을 경감시켜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자원을 활용하여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위기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증진시켜 사회 심리적 부적응, 재난 충격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심리적 응급처치로서 심리 치료나 전문 상담이 아니라 PTSD와 같은 후유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더 큰 문제로 악화됨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지역사회에 파괴가 일어나는 자연 재난이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인적, 기술적 재난은 모두 사람의 정서와 인지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재난이

후의 심리적 지원과 정신건강 서비스는 피해자가 다시 재난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재난현장에서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감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 장기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신, 심리,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재해 경험으로 인한 마지막 범주는 그나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나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걱정이 되며 지금보다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함과 홀몸노인과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Han(2004)의 뇌손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현상학적 연구에 의하면 몸은 비록 장애가 있지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연구의 참여자들은 고난을 극복하는 데에 있어서의 중요한 힘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였다. Kim(2010)의 감사명상이 중학생의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에서 주변의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통하여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도록 훈련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Yang(2008)의 동일한 제목의 연구인 감사명상이 중학생의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 불안을 감소시켜 정서적 안정을 주며 자기실현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재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안을 감소시키고 정서적 안정을 주어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재난피해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실무에서 재난이나 재해, 사고 후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행이 필요하다. 재난이나 재해 후 재적응을 돕기 위하여 이전의 재난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적인 변화와 적응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자조집단을 운영하여 심리적 정서적으로 서로 돕는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교육에서도 간호계 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반으로 재해 및 재난에 대한 사전, 사후 교육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좀 더 다양하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한 교육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 해 주거나 경제적 지원 및 피해복구를 위한 공적인 지원 시스템의 마련과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References

- Bae, Jeong-Yee. 2009. Experience of the Korean Immigrant Population in the US: A Phenomenological Approach. *Psychiatric Nursing Research*. 18(4): 449-462.
- Baek, Woo-Chuel. 2009. A Study on the Efficient System of Disaster Managemen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Choi, Byung-Sun. 1995. Characteristics and Risk Issues of Strategic Response. *Korea*

- Administrative Studies*. 4(1): 27-49.
- Choi, Kwang-Ho. 2011. Review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Adaptation Strategies for Climate Change.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20(2): 249-256
- Colazzi, P. E.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cal Views It*. R. S.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onstruction of Victims Psychological Research Management Support System. 2008.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Law. 2004.
- Disaster Psychological Support Specialist Itinerant Educational Materials. 2009.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 Disaster Victims Psychological Support Guidelines. 2008. Busan Victims Psychological Support Center.
- Han, Young-In. 2004. Lived Experience of Brain-injured-patients' Spouse. Kosin University.
- <http://www.ytn.co.kr>. 2008. 08. 27.
- <http://www.moi.go.kr>. 1998. 1999. 2000. 2001. 2002.
- Im, Mi-Young. 2010. Research on Suicide Attempt Experience by Senior Citizens - Through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Hanseo University.
- Jin Sang-Hyeon. 2011. Prospect and change of Korean Nuclear Policy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The Quarterly Yukbi*. 96: 140-166.
- Kang, Gi-Won. 2007. A Study on Efficient Disaster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Chung Nam Fire Administration. Kong Ju National University.
- Kang, Ye-Jin. 2006. A Study on Paradigm shifts of Disaster Management and the Betterment of Urban Disaster Management System. Ajou University.
- Kim, Eun-Ju. 2010. The Effects of Thanks Meditation on The Middle School Students' Self-Esteem.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 Kim, Gyo-Heon, Seon-Joo Kwon, and Se-Jin. 2009. Psychological Health Impact of the Disaster is Taean Residents: After the Accident, Two Months and Eight Months as Regional Activities of the Time. *Korea Environment Society Conference Kit*. (5): 209-237.
- Kim, Sang Hyun. 2008.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Korean Disaster Management

- System. Konkuk University.
- Kwon, Gun-Ju. 2003.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n Local Governmen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Lee, Jae Eun. 2005. Significance and Necessity for Academic Research of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1(1): 20-32.
- Lincoln, Y. S. and E. G. Guba.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Myeong Su-Jeong. 2008. *Environment and Disaster Forum*.
- Seo, Jeong-Kyu. 2007.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Focused on the Relation with a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Seong, Gi-Hwan 2009. The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the Safety-Welfare Model for Resident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1(1): 80-97.
- Shin, Pyung-Shik. 2006. A Study on the Improved Management Skills of Fire Victims Resident Support Center. Kyonggi University.
- Song, Gyo-Wook. 2012. Necessary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Earnest as Heat Waves and Heavy Rains and Storms. *BDI Focus*. 168: 1-12.
- Oh, Eun-Kyung. 2003. (A) Study on Psychosocial Traits of Clients Experienced Suicide Ideation: Focused on Cyber Suicide-crisis Counseling. Catholic University.
- UNCRD: United Nations center for Reional Development. <http://www.uncrd.or.jp>
-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http://www.undp.org>
- Yang, Jin-Hui. 2008. The Effects of Thanks Meditation on The Middle School Students' Self-Esteem.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 You, Ki-Cheol, Moo-Eob Ahn, Yong-Jun Cho, Jae-Mueng Chaeng, and Kyoung-Soo Lim. 1997. Disaster medicinez: Type of Damage to Arise When Building Collapse A Sampoong Department Sto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ine*. 8(2): 185-192.
- Vis, M., F. Klijn, K. M. De Bruijn, and M. van Buuren. 2003. Resilience Srategies fo Flood Risk Management in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Journal of River Basin Management*. 1(1): 33-40.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강기원. 2007.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충청남도 소방행정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예진. 2006.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와 도시재난관리체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건주. 2003. 한국 지방정부 재난관리 행정체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교현, 권선중, 김세진. 2009. 재난이 태안 주민들의 심리적 건강에 미친 영향: 사고 후 2개월과 8개월 시점의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환경사회학술대회 자료집. (5): 209-237.
- 김상현. 2008. 한국재난관리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현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소방조직 역할제고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은주. 2010. 감사명상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명수정. 2008. 환경과 재해포럼.
- 배정어. 2009. 미국 이민 한국인의 경험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8(4): 449-462.
- 백우철. 2009. 재난관리의 효율적 체제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규. 2007. 한국의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기환. 2009. 주민안전 복지 개발에 관한 연구. 국가위기관리학회보. 1(1): 80-97.
- 송교육. 2012. 기후변화본격화로 폭염, 폭우, 폭풍에 대한 적응필요. BDI 포커스. (168): 1-12.
- 신평식. 2006.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운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진희. 2008. 감사명상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오은경. 2003. '자살생각'경험자의 심리 사회적 특성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기철, 안무엽, 조용준. 1997. 재난의학: 상품백화점 건물붕괴 사고시 발생한 손상의 유형”. 대한응급의학회지. 8(2): 185-192.
- 유엔발전계획(United Nations Center for Reional Development, UNCRD).
<http://www.uncrd.or.jp>

- 유엔재해기구(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 <http://www.undp.org>
- 이재은. 2005. 국가위기관리의 학문적 체계화의 의의와 필요성. 한국위기관리논문집. 1(1): 20-32.
- 임미영. 2010. 노인자살시도 경험에 관한 연구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론을 통하여-.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004.
- 재난심리지원 전문요원 순회교육 자료. 2009. 소방방재청.
-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2008. 소방방재청.
-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지침서. 2008. 부산광역시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센터.
-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센터 설치 협약. 2008. YTN뉴스 보도자료. <http://www.ytn.co.kr>
- 진상현. 2011. 후쿠시마 사고 전후 한국 원자력 정책의 변화와 전망. 역사비평. 96: 140-166.
- 최광호. 2011.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대책과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20(2): 249-256
- 최병선. 1995. 위험문제의 특성과 전략적 대응. 한국행정연구. 4(1): 27-49.
- 한영인. 2004. 뇌손상 환자 배우자의 체험. 고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배정이: 서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간호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 박사 학위(논문 제목: 산후 우울의 이론적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1996년)를 취득하였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정신건강관리(외상후 스트레스, 재난심리지원),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등이며, 현재 국민안전처 정책자문위원, 인제대학교 국제안전도시연구소장, WHO CCCSP 국제안전도시 공인심사위원, 부산광역시 재난심리지원센터 센터장, 부산시 소방안전본부 심리지원센터장, 부산광역시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장, 부산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장, 대한손상예방협회 부회장, 재난심리지원센터 연합회 부회장, 대한스트레스학회 이사, 직무스트레스학회 이사, 부산시 창의시정연구 위원회, 부산광역시 정신보건사업자문단 등으로 활동 중이다. 최근에 발표한 논문으로는 “Development of Web-based child safety education program for Busan Safe City WHO Certification Project”, Inauguration of the first Psychological Support Center for Disaster Victims in Korea”, Development of User-centered Health Information Service System for Depressive Symptom Management”, “해외 이민 한국인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웹기반 지능형 전문가시스템 개발 및 적용”, “NECA원탁회의 합의문: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 각계 전문가가 바라보는 해결책은?”,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대비 재난심리지원 매뉴얼 개발” 등이 있다 (jibai0220@hanmail.net).

박현주: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부산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에 발표한 논문으로는 “다문화가정의 ‘우리가족 되어가기’에 관한 연구”, “일 전문대학신입생의 직업기초능력 증진을 위한 운영 방안 연구”, “자아발전프로그램이 초등학교생의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이 시설 여성노인의 수면, 우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등이 있다(joo1007kr@hanmail.net).

신화령: 인제대학교 간호학 석사졸업을 하였으며, 정신전문간호사로 현재 부산진구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재직 중이다. (crazy-life@daum.net)

홍희정: 인제대학교 간호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마산대학교 응급구조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응급의료(병원 전 단계 및 병원 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재난, 응급처치교육)이며, 현재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경남지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최근에 발표한 논문으로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건강문제(2011)”, “응급의료종사자의 소진 영향요인(2012)”, “대학생의 스트레스실태와 바람직한 관리방안 모색(2012)”,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실태 및 요구도(2014)”, “알콜 섭취 중 Collapse로 내원한 Brugada Syndrome(2015)” 등이 있다(hjhong1117@hanmail.net).

김희현: 부산가톨릭대학교에서 학사취득, 인제대학교 간호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간호학 박사 과정을 수료 하였으며, 진주보건 대학교 간호학과에 조교수로 5년간 근무 후, 현재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신건강관리(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 위기, 재난심리)와 질적 연구에 관심이 있으며, 2009년부터 부산광역시 심리지원센터 상담요원으로서 유가족 상담, 국민 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소방상담 등을 하고 있다. 국가위기관리학회 논문심사위원이며 최근에 발표한 논문으로는 “일 지역 노인의 생의 의미 우울 및 자살생각(2010)”, “한국 노인의 스트레스와 관리방안(2013)” 등이 있다(bangyasee@hanmail.net).

손혜숙: 부산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에서 의학과 석사, 전북대학교 의학과 박사 학위(논문제목: 일부 조산소 용접공진폐증의 폐기능 및 방사선학적 소견, 1994년)를 취득하였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지역사회보건, 역학, 건강증진 등이며, 현재 예방의학회 이사, 인제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주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최근에 발표한 논문으로는 “부산시민의 안전의식 및 행태 조사연구”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국민건강보험 상해상병 관리모형 개발” “병원의 심정지 환자의 자발적 순화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he Immunogenicity of a Single Dose of Hepatitis A Virus Vaccines(Havrix and Epaxal) in Korean Young Adults”,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Prevalence of Hepatitis C Virus Infection by Region in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2005-2012” 등이 있다(pms@inje.ac.kr).